

美동성에 이슈와 韓의 안전 위해 기도의 손 모은다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맞아 한인교계도 기도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마 12:21)

내달 2일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을 맞아 미전역 크리스천들이 일제히 각 계층의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의 손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가주 한인교계도 기도 운동에 가세할 방침이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회협, 회장 진유철 목사)를 비롯한 남가주 일원 5개 연합단체 대표들은 지난 11일 오후 JJ그랜드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년도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개최 장소는 나성순복음교회로,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기도회가 시작된다.

남가주 교계는 2001년 이래 해마다 각 연합단체 산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연합기도회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꾸준한 기도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남가주교회협을 비롯해 남가주한인목사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관은 자마(JAMA)가 맡게 된다.

11일 기자회견에서 남가주교회협 회장 진유철 목사는 이번 행사와 관련해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미 대법원이 결핵보호법(DOMA)의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이다. 결혼에 대한 정의가 무너지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최근 워싱턴 주에서는 한 꽃집 주인이 동성애자의 결혼식 주문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하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지러운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위기의 때



내달 2일 <2013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아 남가주 일원 한인교회가 일제히 기도의 손을 모은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 남가주한인목사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자마(JAMA) 등 5개 단체 대표들이 11일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JAMA 부대표)는 “미역사상 지금 같은 영적 위기의 때는 없었다”며 “특히 ‘동성에 이슈’와 ‘고국 안전’을 위해 집중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행사에서 성도들이 순수하게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 첫째 주를 특별기도주간으로 정하고, 각 단체 산하 교회에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62회째인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은 국제 CCC 창설자인 빌 브라이트 박사의 부인인 보넷 브라이트 여사가 대표를 맡아 섬겨오다가, 현재

는 가정사역기관인 ‘포커스 온 더 패밀리’ 대표 제임스 담슨 박사의 부인인 셸리 담슨 여사가 바통을 받아 지 금껏 이어오고 있다.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필요성을 제안했고, 1952년에 의회에서 인준하고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 제정됐다.

토마스맹기자

INTERVIEW

[라스베가스 교회를 가다] 제일침례교회 김종수 목사



김종수 목사

그곳에 가면 웬지 모를 편안함이 있다. 교회 문을 열면 딱딱한 장의자가 아닌, 폭신한 소파가 눈에 띈다. 바로 라스베가스제일침례교회 이야기다. 일반적인 규격화된 교회 이미지에서 한참 탈피해 있는 이 교회 담임 김종수 목사는 “아무래도 이민교회는 기존의 건물 형태보다 가정적인 분위기가 더 어필할 것 같아 일반 가정집을 개조하는 형식을 선호했다”고 설명을 곁들였다.

여기서 김종수 목사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기 전에, 우선 그의 이력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

1984년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교육목사로 재직하다 그해 12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라스베가스에 처음 발을 내딛고 제일침례교회를 개척했다. 이후 18년간 줄곧 이곳에서 사역하다 은퇴 연령이 다가옴에 따라,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2002년 자진해 후임자를 찾아 세우고 노스캐롤라이나로 개척을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10여년간 성공적으로 목회하다 재작년 10월 다시 라스베가스로 온 것.

→ 4면에 계속 정한나 기자

하나님이 창조한 유전자, 발견한 인간이 특허

연방대법원 심리 시작

양측 팽팽한 대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유전자가 인간의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특허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공학과 의학의 발전에 과연 옳은가에 대한 변론이 15일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유전공학연구소인 미리어드 제네틱스(Myriad Genetics)는 인간의 BRCA1, BRCA2 유전자가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리어드 제네틱스 측은 이 두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소유해 독점적으로 연구하고 약품을 개발해 연간 4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맹과 공공

특허재단은 “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인데 특허권자가 약품의 개발만이 아니라 특정 유전자를 분석할 학문적 권리까지 독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지방법원은 1심에서 “인간의 유전자 가운데 특별히 추출된 일부만이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인체의 유전자”라고 판시하며 특허를 취소했다. 유전자의 자연적 존재 자체에 초점을 맞춘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이라 할 수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특별한 기술과 노력에 의해 추출된 유전자는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몸 안과 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미리어드 제네틱스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유전자이지만 그것을 추출해 내 결국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의견을 지지한 것이다.

현재 인간의 유전자 2만여 개 가운데 40% 가량이 특허로 등록돼 있다. 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특허 소유자가 아니면 연구 내지는 의학적 치료를 할 수조차 없게 되어 있다.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특허가 없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누가 앞장 서서 연구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특허 소유자가 고수익을 얻게 되어 있지만 그런 형식의 보상이라도 있어야 연구가 계속돼 의학과 생명공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미리어드 제네틱스를 비롯한 유전자 관련 특허소유자들은 특허의 내용을 공유 내지는 공동연구하기 보다는 타인이나 타 단체의 연구에 저지하며 수익 역시 독점하고 있어 큰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김준형 기자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C. S. 루이스의 주제별 저서 >> 17면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ASE 나라정비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교역자 10%할인해 드립니다.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하와이 이민 110주년 기념 '한민족복음화대회' 성료



하와이 이민 110주년 기념 '한민족복음화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하와이 이민 110주년 기념 '한민족 복음화대회'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성주 목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한국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를 비롯, 공동회장과 임직원 등 1백여명, 미기총 대표와 세계선교사회 임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첫날 개회예배에만 1천여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참립 110주년을 맞은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가득 채웠다.

10일 오후 7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된 개회식은 김철훈 목사의 사회로 경배와 찬양, 강태욱 목사의 기도, 황성주 목사(하기총 대표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의 영상 축하메시지가 있는 후 한국연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한국연 박위근 대표회장 등 임직원 1백여명 참석

이어 김동욱 목사(미기총 공동회장)와 박명하 선교사(세계선교사회 대표회장)의 축사와 이영훈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와이 이민 110주년 한민족복음화대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며 "이는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세계선교의 불꽃을 전파시키는 도구로 놀랍게 사용하셨다"며 "이번 한민족복음화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향해 전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하와이 원주민인 트리니티 사모아 형제교회 찬양단 3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참석한 성도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했다.

복음화대회 둘째날엔 나성영락교회 박희민 원로목사가, 셋째날엔 인천내리감리교회 김흥규 목사가, 넷

째날엔 축복교회 김정훈 목사가 각각 설교했으며, 마지막 날엔 복음화대회 폐막식에 앞서 김정훈 목사의 설교가 있던 후 이영훈 목사(목회자 부문), 인천내리교회(교회 부문), 한국교회연합(단체 부문), 방지일 목사(선교사 부문)에게 각각 기독교 이민 110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한민족복음화대회 기간 중 매일 새벽기도회와 목회자 세미나, 디아스포라선교포럼이 와이키키리조트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특히 축복교회에 출석하는 허준호·김사방 등 크리스천 연예인들과 찬양단의 공연에, 이민 3, 4세대 현지 주민들까지 다수 참석해 뜨겁게 호응했다.

지난 1902년 12월 22일 인천내리교회 교인 102명이 인천 제물포를 떠나고 그 이듬해 1월 3일 하와이호놀룰루에 도착,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며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한민족복음화대회가 마련됐다. 당시 102명으로 시작된 미주한인 이민 역사가 미국 본토와 중남미로 이어져 110년 만에 약 250만명으로 늘어났으며, 미주 지역에 4300여 한인교회가 설립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

김진영 기자

빌리 그레함, 노스캐롤라이나 'Favorite Son' 선정



빌리 그레함 목사(가운데)가 지난 3월 1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팻 맥크로리(왼쪽)를 만나고 있다.

유명 설교자이자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주(州) 입법자들에 의해 노스캐롤라이나의 'Favorite Son'(당의 대통령 후보지명 대회에서 자기 주 대의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으로 지명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하원과 상원은 수요일 94세의 빌리 그레함 목사와 그의 아내 루스 벨 그레함 여사에 대해 "남편인 빌리 그레함 목사와의 결혼 생활과 사역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함으로 주(州)와 나라에 공헌한 루스 벨 그레함 여사를 기념하길 원한다.

아내 루스 벨 여사와 함께 주에 끼친 영향 인정받아

또한 빌리 그레함 목사를 노스캐롤라이나의 'Favorite Son'으로 지명한다. 상원에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주지사에게 기념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이자 빌리그레함전도연합회 회장인 윌 그레함은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본인의 조부를 기념해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우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사랑한다. 이곳은 본인의 조부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조부모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을 양육했다. 그리고 그의 사역 또한 이곳에서 이뤄졌다"며 "우리 가족은 다시 한 번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사랑과 지지에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한웅재 목사 신곡 <그 정오 우물가> 첫 선



한웅재 목사

그림 <꿈이 있는 자유>로 오랜 동안 활동해 오며 주옥 같은 노래들을 선사해 왔던 한웅재 목사가 '2nd Step Concert'를 가졌다. 13일 아틀란타한인교회에서다.

2nd Step은 더 자유로운 노래를 담기 위한 한웅재 목사의 첫 번째 솔로 앨범(2009년) 타이틀이다. 얼마 전 테

네시 내쉬빌에서 새로운 음반 녹음 작업을 가진 한웅재 목사는 이날 콘서트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담은 노래 '그 정오, 우물가'라는 신곡을 최초로 선보였다. 한웅재 목사는 "언젠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이 느껴져 꼭 노래로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곡을 소개했다.

앤더슨김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HANA Health Insurance Solutions, Inc
LIC #0H66712

1948년 메디케어 신청을 도와 드립니다

하나 건강 보험의 사무실에 오시면 5분이면 간단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받지않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신청 하면서 신청인의 매달 소득과 자산에 따라 자격이 되는 정부 혜택 (메디 -칼, 메디케어 보험료 절약 프로그램, 처방약 비용 보조프로그램)도 같이 신청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2013년 9월 부터 시행 예정인 메디칼 메니지드 케어 (메디칼 HMO) 플랜이란?
- 2014년 부터 시행 되는 칼메디 컨넥트 (메디칼, 메디케어 통합 플랜) 플랜이란?
- 오바마 케어 플랜이란 ?

(상기의 세미나는 특정 상품을 광고 하거나 판매 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을 주제로, 하나 건강 보험의 데이빗 강이 세미나를 하여 드립니다. 장소와 시간은 아래와 같으니 많이 참가 하셔서 변화에 따른 이득과 불이득을 인지 하시고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예약 문의 사항은 TEL:213-500-4563 (전화를 받지 않으면 통화중 이오니 10분내로 전화 올리겠습니다.)

1. 4월 16일 2013년 3921 WILSHIRE BL #100, LA, CA, 90010 월서 양로 보건 센터.
2. 4월 19일 2013년 15719 VANOWEN ST, VAN NUYS, CA, 91406. 유어데이 양로센터.
3. 4월 22일 2013년 2001 W OLYMPIC BL, LA, CA, 90006 웨스턴 양로 보건 센터.
4. 4월 20일 21013년 520 S VIRGIL AVE #204, LA, CA, 90020 하나 건강 보험 사무실.

213-500-4563
Customer Service

LOS ANGELES
520 S. Virgil Ave. Suite 204,
Los Angeles, CA 90020

DAVID KANG
LIC# 0F16211
T. 213-500-4563

제28회 HYM청년연합집회, 노진준 목사 '행함' 있는 믿음 강조

청년이여, 중요한 건 은혜!
삶을 그분께 맡기라



제28회 HYM청년연합집회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주제로 13일(토)과 14일(일) 저녁 나침반교회(민경엽 담임목사)에서 뜨거운 열기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13일 오후 7시 막을 올린 첫날 집회는 HYM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했으며, 이에 참석한 한인 청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로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주강사로 나선 노진준 목사(한길교회 담임)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갖고 이번 집회가 시작됐다"면서 "오늘날이 땅을 살아가는 한인 기독교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며 운을 뗐다.

노진준 목사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란 말이 있는데, 이를 한 번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리킬 때,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을 일컬어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세상에 이보

다 인위적인 믿음이 없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좋은 믿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강한 자기 확신=좋은 믿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믿는 이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 도중 그는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역사상 모든 권력자들도 결국엔 죽음의 최후를 맞이했다"면서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고 예수가 진정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노 목사는 영생의 조건을 묻는 부자청년과 예수님과 대화할 때로 들면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청년들을 도전했다.

"통상 행함에 관한 믿음을 논할 때 은혜를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 계산하거나 분석하게 돼 결과적으로 행함이 뒤따르지 않게 됩니다."

노 목사는 마지막에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회가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은혜와 복음, 즉 알맹이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면서 "구주 되신 예수 안에 거하고 그 분께 삶을 내어 맡기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며 이날 설교를 마무리했다.

HYM청년연합집회는 남가주 일일 최장수 모임으로 해마다 두 차례씩 개최해 오고 있다. 올 하반기 집회는 오는 9월에 열린다.

토마스 멩 기자

미주성결교 제34회 총회, 총회장에 차광일 목사 당선



미주성결교회 제 34회 총회에서 차광일 신임총회장과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미주 선교 43년째를 맞이한 미주성결교회가 지난 8-12일 한빛교회(차광일 담임목사)와 퍼시픽팍스호텔 컨벤션룸에서 제34회 총회를 개최했다.

8일 개회예배로 시작한 이번 총회는 대의원 140여명을 비롯 한국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박현모 목사와 임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총회장 김병곤 목사
장로 부총회장 박광원 장로

이번 총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총회 임원들에게 특별회원권을 부여해 총회 기간 중 발언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총회 이슈로 부각된 총회장 선거 경선에서는 LA동지방회가 추천한 현 부총회장 차광일 목사와 북가주지방회가 추천한 김용배 목사가 맞서 3차 투표까지 가는 끝에 결국 차광일 목사가 당선됐다.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캐나다지방회가 추천한 김병곤 목사와 남서부지방회가 추천한 조종곤 목사가 2차 투표까지 가는 끝에 조종곤 목사가 사임하고 김병곤 목사가 최종 당선됐다.

또 장로 부총회장에는 현 회계 박광원 장로가 무투표 당선됐으며, 서기는 중부지방회가 추천한 광철현 목사가, 부서기 후보는 북가주지방회가 추천한 이상국 목사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추천이 안 된 회계에는 류호생 장로, 부회계에는 최대현 장로(남가주 장로성가단장)가 각각 당선됐다.

총무 선거는 10일 오후 중부지방회가 추천한 현 총무 박승로 목사와 엘에이지방회가 추천한 김희창 목사가

임후보하여 선거전을 치른 결과 박승로 목사가 유임하기로 했다.

한편, 이 기간 중 한빛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시행해 17명이 새로 안수 받기도 했다. 또 전국여전도회 사모회 총회와 세미나를 이기용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총회장 차광일 목사가 설교를 전했다. 회무를 마친 11일에는 지역관광 및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다.

토마스 멩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한국어서비스 KEVIN YOO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Chicago : Skokie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성회 전격 막 오른다



미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성회가 오는 18일 오후 7시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막이 오른다. 대회 첫 강사로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나선다.

한인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성회 <로스앤젤레스 복음화대회>가 오는 18일(목)부터 21일(일)까지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기총 미주지부(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18일 오후 7시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기총 미주지부(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18일 오후 7시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열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와 한기총 미주지부(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성회는 18일 오후 7시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의 집회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인어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이어 19일(금) 오전 6시, 20일(토) 오전 6시 LA 주님의영광교회에서 통곡새벽부흥회가 잇달아 열린다.

또 19일 오후 7시 30분에는 만나교회에서 길자연 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예배를

로 흥재철 목사 주례 하에 다민족 합동결혼식을 연다. 이 합동결혼식에는 어려운 생활 형편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이 참여하며 히스패닉 18가정, 한인 2가정이 참여할 예정이다. 21일(일) 오후 7시에는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는 10여개의 성가단이 참여하는 대성가 합창제가 열리며, 이에 앞서 드러지는 예배에서는 오관석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김사무엘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준비위원장에는 지용덕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대회장으로 섬기며, 고문에 임동선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목사), 박영창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조천일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 등 여러 지역교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문의: (213) 858-3781

토마스 맹 기자

조용기 목사 첫 강사로 나서... 18일 LA 주님의영광교회서

오른다. 이번 대회와 관련, 한기총 미주지부 한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한국인은 물론 라티노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강사로는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를 비롯해 길자연 목사(예장합동 증경총회장), 흥재철 목

사(한기총 대표회장), 오관석 목사(기독교침례회 증경총회장) 등이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기간 중 행사는 모두 5개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영적대각성 일일부흥회가 4월 18일(목) 오후 7시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담임목사)에서

열린다.

특히 이 행사에서는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 서재필 선생의 손자 서동성 변호사 등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일(토) 오전 11시에는 주님의영광교회에서 부부 20쌍을 대상으

>>기사 1면으로부터 이어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어떤 연유로 그는 한 번 떠났던 라스베가스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걸까. 사연을 들어보니, 이렇다.

라스베가스제일침례교회는 김 목사가 사임할 당시만 해도 성도수 130여명 규모의 웅만한 중대형교회(이곳에선 이만하면 대형교회에 속한다) 뻥칠 정도로 탄실함을 자랑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후임 목회자가 10년간 사역하면서 교세가 점점 약해져 급기야 2011년 여름 한국인 성도수 7명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치닫해 왔다. 그래서 후임 목회자로부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역하던 김 목사에게 교회를 맡아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연락이 왔고, 이에 그는 하나님께 뜻을 여쭙본 뒤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 돌아온 터였다.

마침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무하던 교회도 잘 마무리하게 됐고, 이에 더해 미주남침례회(SBC) 지방회 총무부장의 권유가 한몫 했다. “뭇보다 하나님께선 제가 여기 안 오면 안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됐건 그는 다시 라스베가스로 돌아왔다. 28년 전 처음 개척하던 심경으로 말이다. 강산이 변해도 세 번도 더 변했을 세월이 흘렀건만, 그의 얼굴엔 왜 이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는 불평 한 마디, 그늘 한 점 없다. 오히려 “미력하나마 이 ‘할아버지’ 목사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연신 겸손을 띤다. 다음은 김 목사와의 일문일답.

- 라스베가스에서 교회 개척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다들 선교지라고 들 하던데.

제가 라스베가스를 떠날 때만 해도 한인교회가 전체 9개 밖에 없었는데, 10년 새 도시 전반적으로 붐이 일어나면서 한때 인구가 크게 급증해 교회수가 50개로 늘어났다. 이후 붐이 가라앉자 한인들은 이곳을 많이 떠났는데, 교회수는 그대로다. 그러나 교계에 잡음이 많을 수 밖에. 교회가 태동하는 동기가 순수한 개척보다는 내부 분열로 인한 개척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아울러 라스베가스교계가 어려운 것이, 전도도 물론 어렵지만 교회간 연합이나 교제가 타도시에 비해 각박한 편이다. 교계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협이나 목사회 모임에 가도, 모이는 몇 사람만 모이는 식이다.

-연세가 일흔이고 이곳에선 제일 어르신이라 들었다.

2011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무할 당시 그해를 끝으로 은퇴할 작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여기 오는 바람에 사역의 연장선을 잇고 있다.

-남침례회에는 은퇴 연령이 없지 않은가.

물론 없다. 하지만 목회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제일 잘 알지 않은가. 욕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나 교인들 앞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0년 전에 이 교회를 내려놓고 떠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교회가 재정적인 여건이 안 돼 목회자를 모셔올 형편도 못 된다. 저는 은퇴 연금도 받고 개인적인 생활이 감당이 되니 교회가 빌드업(build-up) 될 때까지 돕는 것이다.



라스베가스제일침례교회 김중수 목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라스베가스의 경우, 갈라져서 생겨난 교회가 많은 터라 흩어진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 같다.

맞다. 저뿐 아니라 라스베가스는 교인 하나 전도되기까지 참 어려운 지역이다. 대개 교인수 늘어났다고 하면 A라는 교회에서 교인 몇명이 그룹을 이뤄 속 빠져나간다.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동이 대부분이다. 순수하게 믿지 않는 이를 전도해서 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지역에서 터줏대감으로 오래 목회하셨는데,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시무하면서 느끼는 게 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신다. 다른 교회의 경우, 장로님 같은 분들이 헌금해서 건 축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렇게 헌금 낼 분도 없었다. 심지어 연세가 팔십이 넘는 노인 한 분은, 헌금은 해야겠는데 수입이 없으니 쓰레기통을 뒤져 강통 수십만개를 모으셨다. 그걸 팔아

받은 돈으로 정성스레 헌금을 내시고 그러셨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정성과 희생을 통해 여기까지 왔다. 1984년 이래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봐 왔는데, 처음엔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도 점차 경제적인 면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안정돼 가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을 볼 때가 가장 보람을 느낀다.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메타 블루캡 문선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당뇨병,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ABHE 정회원 축하 및 기금모금 만찬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IRUS)이 2013년 2월 15일에 연방정부 산하 대학평가기관인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의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고 또 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만찬을 위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IRUS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의 참여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교회는 장소 예약관제로 필요하오니 본교 사무실(213-381-0081)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3년 4월 22일 (월) 오후 6시
장소: 옥스퍼드 팰레스 호텔 Tel. 213-389-8000
745 S. Oxford Ave., L.A., CA 90005
참가비: \$100 (payable to IRUS)
초청연사: Dr. Clay Ham, Ph.D(ABHE)
배무한 회장 (Los Angeles 한인회)
참석인원: 250명 모금 목표액: \$10만
주관 IRUS 이사회 후원 IRUS 동문회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 박현성 박사 이사장 서종천 박사 www.irus.edu / iruskapc@gmail.com

성령께 사로잡혀 쓰임받자

사무엘상 10: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시며 왕정 정치(王政政治) 시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어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영적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기록입니다.

쓰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예정적 섭리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명령에 사환과 함께 찾다가 찾지 못하며 사환의 제안에 따라 숲 땅에 있는 사무엘에게 암나귀들을 찾은 방도를 물어보자고 갔다가 사무엘을 통하여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는 전언과 함께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시라 그 기업(나할라드) 곧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의 지도자(王)를 삼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무엘이 행한 것이나, 여호와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된 것은 사무엘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한 것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은 암나귀들을 찾느라 애쓰다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뜻밖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은 모든 것이 풀지에 되어진 일들로 믿어지지 어려울 정도로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임된 것이 사무엘의 개인적 의지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섭리로 되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문 2~7절 사이의 그날로 사울이 당하게 될 3가지 예언적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 심각하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사로잡으십니다.

그날 사울에게 3번째 징조가 실현될 때 10~11절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함을 보아 이미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즈음 교계에서 성령 받았다 또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말들의 어원(語原)적 의식(意識)은 자기를 주격(主格)으로 세우고 성령은 자기의 소유격(自己所有格)으로 만든 것 같은 어감(語感)이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이끌리며 쓰임받겠다고 해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기를 주격으로 의식하다 보니 사언행(思言行)이 자기 의지적 주장(自己意志的主張)대로 자행(自行)하다가 신앙과 사명(使命)을 그르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나’라는 자기 존재(存在)부터 아들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물(所有物)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성령님의 도구로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점령(占領) 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어찌 되든 간에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성령께 사로 잡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절실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신앙생활이 곧 성령께 사로잡힌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지시를 순복할 때 승리와 성공이 보장됩니다.

사울이 성령께 사로잡힌 후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을 동안에는 영적 승리의 삶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

워 이스라엘 왕 삼으심을 선포한 후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신정 정치의 사사 시대는 끝났고 사울 왕을 통한 왕정 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할과 지시에 따라 사울은 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후 사울 왕의 치세는 과거 이스라엘을 고통혀 온 주변 국가들 곧 모압, 암몬, 에돔과 소바 왕국들, 블레셋과 아말렉까지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습니까(삼상 14:47~48).

이상과 같이 사울은 여호와와 사자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인도와 지시에 순복할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성대(太平聖代)의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쓰임받는 것은, 첫째로 죄악에서 구속 받은 증거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보증이 되고,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터인즉 성도(聖徒)는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25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오늘 우리가 고달픈 내 형편과 처지며 환경과 여건이 나의 욕구와 기대를 따라 좋게 바뀌어 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서둘러 나부터 회개하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 사로잡혀 이끌리며 쓰임받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진심으로 소원할 때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가능성의 방법과 풍요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제)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허황된 계획으로 허탄한 실재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보다 더욱 힘있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림을 소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교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요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토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중흥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안목
실시간 업데이트 되는 생생한 기사

예 할 때 '예' 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하는 정직한 신문 **기독일보**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mtsa.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p> <p>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p> <p>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P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xs4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p> <p>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p> <p>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uu.us</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p> <p>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p> <p>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p> <p>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p> <p>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p>	<p>미주성결대학교</p> <p>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p> <p>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p>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청빙광고

● **교회 소개:**
아름다운 도시 플로리다 올랜도에 위치한 올랜도제일장로교회 (<http://orlandofirst.org>)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 사회와 2세 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모십니다.

● **지원자격:**
M.Div 이상, 목사안수후 최소 3년 경과하신분(담임목사 경험 있으신분 우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 (하드카피 혹은 소프트카피):**

- 자필이력서 (추천인 5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포함)
-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 자기 소개서 및 가족 소개서 (가족 사진 포함)
- 목회 계획서 (목회 동기, 목회 철학, 목회 비전)
- 최근 설교 두편 녹화 CD 또는 파일

● **제출처 및 방법:**

- 우편접수처:
First Korean Presby Church of Orlando (청빙위원회)
140 Lake Rose Dr., Orlando, FL 32835
- 이메일접수처 및 전화문의처:
FirstKoreanPresby@gmail.com
716-912-0747(주인근장로), 407-592-1614(박현환집사)
- 제출 시한: 2013년 4월 26일 도착분
- *우편제출 서류는 청빙절차 종료후 원하시는 경우 돌려드립니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교회의 본질은 건물 아닌 '사람'

LA 기쁨의교회 성전이전 감사예배



LA기쁨의교회가 14일 새 성전 이전을 기념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희문 담임목사

LA기쁨의교회(이희문 담임목사)가 개척 3년 6개월만에 새 성전으로 이전했다.

LA기쁨의교회는 지난 14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자리에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교회(고전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희문 목사는 "교회는 말씀을 전한 이희문 목사는 "교회는 건물이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고린도 교회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험뜯고 서로 싸우며 파벌을 조장했고, 우상숭배가 끊이지 않았으며 도덕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희문 목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고린도처럼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많은 상처와 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는 '자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진정한 성전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자"고 덧붙였다.

이희문 목사는 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건물이 좋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다"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아름다운 성전이 됨으로 빛과 소명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전했다. 이어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대표)가 영상으로 "이민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로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의 축사를 전했다.

동교회는 2009년 9월 6일 아로마센터 2층에서 개척예배를 드리고 지난 3월 3일 지금의 건물로 이전했다. ▶주소: 3938 Wilshire Blvd, LA, CA ▶전화: (323) 788-4131

<모세, 기적을 노래하다> 간증 콘서트

26일 은혜한인교회서

박모세 군, 감동 전한다



박모세 군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장애인 성악가 박모세(21) 군과 어머니 조영애(50) 집사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오는 26일 오후 8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에서 <모세, 기적을 노래하다>라는 주제 하에 열리는 간증 콘서트 무대에서다.

지난달 초부터 조이장애인교센터(대표 김흥덕 목사) 초청으로 미주순회 찬양 및 간증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박모세 군은 26일 집회를 끝으로 남가주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된다.

박모세 군은 이번 집회를 통해 태어나자마자 대뇌의 70%, 소뇌의 90%를 절단하는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간증과 찬양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은혜한인교회 측은 박모세 군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할 이번 간증 콘서트와 관련해 "귀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적극적인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714) 446-6200

사이프레스교회 바자회

사이프레스 교회는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바자회를 개최한다. 여름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다. 수익금은 남미 여름선교 기금으로 사용되며 물품기증은 4월25일까지 받는다. ▶주소: 6143 Ball Road, Cypress CA 90630 ▶문의: (562) 867-5223

바로 잡습니다

지난 4월 11일자 본보 6면에 게재된 이단대책세미나 예방 세미나 광고는 제작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COLUMN

행복한 숨은 그림 찾기



정 한 나 사모
남가주광영교회

오랜만에 반가운 봄비를 맞으며 거리마다 파릇한 행진이 시작된 지 오래다.

겨우내 죽은 것처럼 앙상하게 드러났던 벗겨진 나무표피를 뚫고 어린아이 살갗 같은 연둣빛 새싹들이 갓난아이 같은 신비로움으로 저마다 얼굴을 내밀었다.

어디 새싹뿐이라? 숨사방을 뜯어놓은 듯 하얗고 눈부신 꽃봉오리들이 가지 끝에 풀도 없이 붙어 있다.

살랑살랑 미풍에도 떨어질듯 아슬라한데도 시간이 갈수록 우아한 자세를 맡껏 뽐내는 꽃나무 가로수들... 운전대를 잡고 흥긋거리며 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정경들이어서 아예 차를 멈추고 새봄을 노래하는 곳으로 달려가 황홀한 가슴을 두발에 실어 내렸다.

'봄'은 '보다'의 명사형이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창조주의 숨은 숨씨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바로 봄인 것이다.

조금 있으면 강렬한 태양빛을 견뎌내느라 연한 싹들은 질기고 강한 청록 빛 잎사귀들이 되어 버리겠다. 그러곤 찬바람에 부딪기다 소리 없이 아스팔트위로 떨어질 테니 말이다.

우리 늘 보이는 것에 익숙해 하고 보는 것이 다 인양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가득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점보다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 많은 새가 깃들이도록 하늘 향해 뻗을 수 있는 아름다운 거목을 상상할 수 있을까?

물속에 잠겨있는 연꽃잎 속에도 이미 그 화려하고 넉넉한 연꽃이 피어 있는 것이다. 사과나무도 꽃이 피기 훨씬 전부터 맛있고 탐스런 사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기에 인내와 사랑으로 물을 주고 가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인생에도 감추어진 사람의 범죄들이 얼마든 때때마다 즐비하게 서 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부모의 소망이 가득한 이름들을 준비해 놓곤 한다. 그 이름 석 자에 담겨진 온갖 꿈과 기대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눈앞에 보여진다. 짧은 이름 안에 감추어진 소망들을 꺼내려고 서두르면 아예 열매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끝없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며 자녀라는 나무를 소중히 가꿔야 하는 부모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이 자녀양육이다. 우선 내 뜻을 잡고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보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겸손한 섬김을 쉬지 않아야만 이름값을 하는 아이들로 우뚝 세워질 것이다.

마음에 가득한 소망처럼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라면 일단 기다림의 법칙을 매일을 삶속에서 밥 먹듯이 지켜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사는 믿음의 분량이 온몸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뜨거운 용광로의 사랑이라도 자녀의 나이와 특성에 맞추지 않는다면 사랑의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눈높이 사랑이 매순간 필요할엔 두 말이 필요 없다. 눈높이를 맞추려면 일단 내가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춰야만 한다.

한창 사춘기를 지나가는 12세 막내부터 16세 셋째까지도 다시 새롭지만, 올해 대학을 졸업하는 둘째와 대학원생인 24세 큰아이의 엄마로 여섯 명의 자녀에게 매일 눈높이를 맞추는 자세가 수도 없이 요구된다.

때로는 힘에 부칠 때도 있고 무릎관절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지만 여섯 자녀 안에 숨겨진 놀라운 보물들을 3초만 상상해도 어느 새 그 통증을 몰라낸 감사와 환희로 바뀌어져 있음을 실감한다.

이제 곧 푸르른 거목들이 되어 세상을 살려내고 멋진 열매로 풍요로워질 나의 아름다운 여섯 나무들...

오늘도 그 안에 감춰진 황홀한 행복이 아름다운 봄의 교향곡과 함께 어게츄를 추게 한다.

Dealer No. 62655 www.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Cell. 323-737-5900

마태복음 5:3-10(8복)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혜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323-737-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남가주광염교회, 리버사이드 주님의기쁨의교회서 김인태 안수집사 간증집회 열려

‘11년간 무려 3백명...’ 전도왕 김인태 집사가 말하는 전도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왕 타이틀을 11년째 고수하고 있는 김인태 안수집사



김인태 안수집사의 간증을 들은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요21:16)”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온다. 저마다 주께 받은 사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의 사랑하는 양을 먹이는 일, 바로 전도에 힘쓰길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요? 무슨 뽀족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하고 말이죠.”

올해로 11년째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왕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는 김인태

(54) 안수집사의 말이다. 그는 올해 들어 벌써 11명을 전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 그가 전도에 대해 하는 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나기 전에만 해도 사울처럼 성경을 7번이나 찢었던 흉악한(?) 인물이었다. 그뿐 아니다. 찢은 성경 종이로 담배까지 말아 피웠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180도 변화돼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10일 남가주광염교회(정우성 담임목사)에 이어

12일 리버사이드 주님의기쁨의교회(이상호 담임목사)에서다.

“하루는 기도원에 가지는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뿌리치고 겨울낚시 하

러 갔더랬죠. 근데 그만 얼음이 깨져 호수에 쑥 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살겠다고 허우적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얼음은 연신 부서져 나가고 서서히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 때였다. 불과 0.1초 사이에 여지껏 지나온 38년 인생이 형광등처럼 ‘번쩍’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이전에 저 때문에 예수를 떠난 사람들, 그동안 제가 핍박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다. 그 기도를 마치자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제 팔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누군가 허리 뒤에서 두 손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신기했다. 그곳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 두 손이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렇다. 이 보이지 않는 힘,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물 밖에 나온 그는 10분간 옆으러 통곡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이후,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히 바뀌게 됐다. 영혼 구원의 열정에 휩싸여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한 전도자가 된 것. 새벽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알게 된 단 한 영혼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2002년 도미해 5월부터 나성순복음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과 6개월만에 전도왕이 됐다. 그리고 이후 한 번도 전도왕 타이틀을 놓쳐본 일이 없다. 정말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맛을 보아 안사람이기 때문일 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요?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전도는 습관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집에 있을때나 일을 할 때나 운전할 때나 늘 전도의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남같이 해선 남 이상 될수 없다.’ 삶의 습관 자체가 전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우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다음 ▶손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타인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꺾음을 따먹지 못해도 정성스레 말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듯 전도할 때도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합니다. 그러하다보면 이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았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으로 그는 “부족하지만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끈질기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결실을 주신다”며 “오늘 비록 결실이 없더라도 절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도전받겠다고 할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인태 안수집사의 간증집회를 원하는 교회는 본보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 718-1512

죽음 이후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는 답해야 합니다

베스트 셀러 "영어 훈련소" (김영사) 저자 하득희 교수의 기적의 영어회화

베스트 영어훈련원

제 24기 훈련생 모집

- 영어.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 회화 3년 과정을 3개월에 완성하는 영어 훈련원
- 오랫동안 영어회화의 전문가들에 의해 입증된 방법을 최로로 교육화한 훈련원

LA 한인타운	플러튼
훈련기간 2013년 4월 22일(월)~2013년 7월 10일(수) 주 3회(월화수반/ 토요반) 훈련시간 주중반: 오전 10:00~11:40 저녁 7:30~9:10 토요반: 오전 9:00~1:30 무료설명회 2013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저녁 7시30분 훈련장소 LA 베스트 영어 훈련원 3251 W. 6th, #101 LA, CA90020 (6가 + 뉴햄프셔) 등록비 580불(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훈련기간 2013년 4월 27일(수)~7월13일(토) 주 3회 (월화수반/ 목금토반) 훈련시간 월화수: 저녁7:30~9:10 목금토: 오전10:00~11:40 무료설명회 2013년 4월 24일(수) 오전10시, 저녁7시30분 훈련장소 1309 W. Valencia Dr., Fullerton CA92833 (Brookhurst & Euclid 사이) 등록비 580불 (일시불, 교재비 포함) 접수 설명회 당일

- 훈련대상**
- ▶ 오랫동안 공부했으나 영어회화가 잘 안되는 분
 - ▶ 직장생활과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회화가 절실하게 필요한분
 - ▶ 미국사람만 보면 겁이나고 말이 안나오는 분
 - ▶ 다 아는 내용인데 말이 안되는 분
 - ▶ 라디오, TV가 전혀 안 들리는분
 - ▶ 미국식 발음과 문법에 자신이 없는 분

기적의 영어회화의 특징

LA 제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기 훈련생들 격찬! 또 격찬!

뉴욕 한인들로부터 확실한 검증/뉴욕 한국일보 기자가 직접 참석을 통해 "바로 이것이다" 격찬 타운뉴스 기자 직접 훈련 후 격찬 / LA 다양한 분들 훈련 후 찬사 " 영어 훈련소" <김영사>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 강연회 폭발! 1년 해외 연수보다 더 효과적인 곳!

- 기적의 영어회화의 방법**
- ▶ 가장 쉽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중학교 1,2 학년 영어교과서를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
 - ▶ 눈으로만 해오던 영어방식을 입체적 방식으로 대 전환
 - ▶ 분석하지 말고, 단순하게 영어에 자신감을 갖는다.
 - ▶ 공부하지 말고, 훈련하라!
 - ▶ 책한권을 끝냈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음성학적인 원리를 터득함으로써 발음문제 해결
 - ▶ 단순 반복으로 문장이 생각과 동시에 흘러나온다.
 - ▶ 시각, 청각, 구강근육운동을 통해 뇌를 입체적으로 자극하는 학습
 - ▶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자주 반복하라!
 - ▶ 뇌리에 영어 코드를 만들어라!
 - ▶ 시간을 길게 잡아 지쳐 포기하지 말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한국영어훈련소의 폭발적인 인기와 성과, 교육수료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하득희저음 영어훈련소(김영사)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spiritenglish.com cafe.godpeople.com/spiriteng

베스트 영어훈련원 (213)239-4815 (213)507-0691

부활을 믿는 자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성도(聖徒)에 대해 정의 내리자면, 한마디로 '부활을 믿는 자'를 가리켜 성도라 부른다고 할 수 있다.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례식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즉 죽음 앞에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

절망의 대명사라 부르는 죽음 앞에서 소망의 눈물을 흘리고, 환난과 곤고의 절정인 죽음 앞에서 결코 무릎 꿇지 않고, 목숨을 위협하는 칼 앞에서 여유로운 사자의 심장으로, 사람들의 배신과 등집으로 외로움의 파도가

몰려와도 한 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힘이 부활이다.

조상 탓하지 말자. 환경 탓, 운명 탓하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배우자 탓, 시어머니 탓, 며느리 탓하지 말자.

너 때문이야 하며 부르르 치떨지 말자. 나 때문이야 하자. 내 탓이야 하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부활을 믿고, 또 가자.

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갈보리믿음교회 선교기금마련 바자회



LA한인타운에 위치한 갈보리믿음교회(강진웅 담임목사) 여성교회가 1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교회 주차장에서 선교기금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개최했다. 인근 주민들이 바자회장에 둘러 물건을 구입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켄터키 공립학교, 편지 한 장 무서워 십계명 철거

그동안 십계명을 공립학교 내 교실과 여러 장소에 게시해 온 켄터키 주에서 다시 십계명 논쟁이 불었다. 그동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공립학교를 비롯해, 주의회 의사당 및 법원, 공공기관, 공공건물 등에 십계명이 게시되어 왔다.

◆과거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그러나 이것이 무신론자들에 의해 정교 분리 문제로 반지자 연방대법원은 1980년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 왔다. 그러나 하급법원들이 잇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며 혼란이 가중됐고 2005년 재심을 했다. 결국 종교적 목적이 강한 켄터키 주법원의 십계명은 불법이며 미국 법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십계명을 게시한 텍사스 주법원의 십계명은 용인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적용... 정교 분리 기준 달라

지방자치단체 마다의 해석도 달랐다. 예를 들면, 2005년 켄터키 주 법원에서 십계명이 폐기된 지 1년 만에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십계명을 법원 건물에 게시하는 식이었다. 물론 이런 혼란들은 곧잘 소송으로 이어지곤 했다.

◆법 전문가들도 의견 충돌

이에 대해서는 법 전문가들의 해석도 다르다. 듀크대학 로스쿨의 어린 케메린스키 교수는 세속적인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십계명을 설치하는 것을 지지해 왔으며 텍사스 로스쿨의 더글러스 레이콕



십계명

교수는 정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그러나 이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매우 큰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켄터키 주 교육국의 결론은?

켄터키 주 브리시트 카운티의 공립학교는 결국 십계명을 학교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600마일이나 떨어진 위스콘신에 위치한 종교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의 협박 편지 한 장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과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의식한 듯 "(동등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다른 사료와 함께 하지 않는 십계명 게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즉, 십계명의 종교적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다른 사료를 함께 전시할 경우 교육적 목적에 부합돼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이다.

현재 현지에서는 켄터키 주 교육국이 십계명을 철거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도 일고 있다. 한 여성은 "우리 자녀들은 십계명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말고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모든 것이 은혜다> 브레넌 매닝, 12일 소천

개신교와 가톨릭 경계 넘어

깊은 영향 미친 저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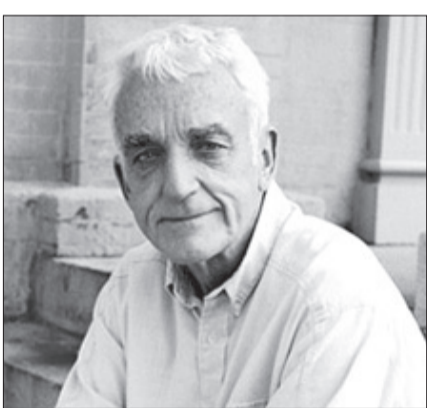
저명 기독교 저술가인 브레넌 매닝(Brennan Manning)이 지난 12일 오전 12시 10분 향년 78세로 소천했다.

브레넌 매닝은 '세상과 격리되지 않으면서도, 평생 가난한 자들 속에서 묵상하며 살았던 수도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에 번역 출간된 그의 책은 가장 최근에 나온 회고록 <모든 것이 은혜다>를 비롯, <아바의 자녀>, <사자와 어린양>, <아바를 사랑한 아이>,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신뢰(이상 북있는사람)>,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두란노)>, <한없이 부여주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규장)>,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 <그대 주님 따르려 거둔(이상 좋은씨앗)> 등이 있다. 현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은 <부랑아 복음(The Ragamuffin Gospel)>이다.

뉴욕의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난 브레넌 매닝은 고교 졸업 후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그러나 신앙에 대한 고민 없이 성공을 향해 나아가다 자신이 바라던 성공의 결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으면서, 펜실베이니아 성 프란시스 칼리지에 입학하고,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들어가 사제가 됐다. 1960년대 후반 스페인으로 간 그는 '예수의 작은 형제들'에 가입해 빈민들과 함께 노동과 침묵, 기도생활을 계속했다.

이후 자라고자(Zaragoza) 사막 동굴에서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결을 떠나왔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



브레넌 매닝

음을 얻는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돌아와 앨라배마 환구 도시에 실험적 공동체를 세우고, 새우잡이를 하면서 어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개신교와 가톨릭의 경계를 넘어 탁월한 강연과 저술을 통해 북미와 유럽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 왔으며, 특히 개신교 영성 작가와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선사했다.

그는 <부랑아 복음>에서 "고통과 실패, 외로움과 슬픔, 좌절과 죽음이 당신 삶의 일부가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떠한 악도 은혜를 영원히 이길 수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아바의 자녀>에서는 "당신 자신을 다른 무엇이 아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정의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에서는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우리 행위에 기초하지 않으며, 절대로 우리의 기분에 제약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 사랑은 확실하다. 그리고 다정하다"고 적고 있다.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한식예배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전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엘리아 김** 담임목사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T. (213) 413-1600 / laopendoorg.org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망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재복음선교교회
은 성도나 사랑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에 기초하는 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327-9200, T. (213) 598-9932

최운형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 사자들의교회, 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박승부 장로 1/21, 2/21, 3/1 수료생배움, 현재 4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봉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순안으로 각종질환치료하는 의학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LA 2836 w 8th st #106 LA, CA, 90005
OC 부활교회 (아리랑마켓 뒤) T. (213) 381-7273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김혜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정장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류중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7:30(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듬, 성경학교노니노, 만민대상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서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문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성교에 흠뻑, 초·초·초 정신의 흠뻑, 바른교회간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충헌선교교회
텔레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메(Maturing), 맞선디(Antror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결혼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 성장을 위한, 이가인정치를 통해, 선교와 영혼을 위한 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교회입니다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혜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재자연연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형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마원철 담임목사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신년부 오전 11:00
유신 유아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전길성 담임목사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실현을 위한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부예배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r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망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물통(通)하여 만사형통하시라!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유애예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점음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부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최상훈 담임목사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평일)수요일
오전 12:00(토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현경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랑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기적 같은 암 치료법, 경험해 보세요”

구기조 목사, 스페인암연구센터
한동규 박사 치료법으로 건강 회복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하였습니다〉의 저자 한동규 박사는 현재 스페인에서 스페인암연구센터에서 일하며, 스페인 자연요법 암 에이스 마약협회에서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파나마 공화국 LACAS 대통령 주치의로 재직시 난치 암환자들을 치료해 대통령으로부터 SIMON BOLIBAR 동상이 새겨진 메달을 수여 받기도 했다. SIMON BOLIBAR은 남미 평화를 위해 힘쓴 정치 지도자다.

구기조牧사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고통 받으며 암을 키우지 말고, 암세포만 녹이고, 암의 핵까지 빠져 나오게 하는 기적 같은 치료법이 있으니, 희망을 갖고 믿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구기조 목사

한 박사의 암 치료법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구기조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임마누엘복음성교회장)는 3년 전 전립선 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한 박사를 통해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 그는 한 박사의 처방대로 환약과 주사를 통해 4개월 만에 기적을 체험한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치료법을 다른 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전하고자 미주 지역 책임자를 맡아 현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내가 전립선 암에 걸렸을 때 약을 먹고 3개월 후에 고통이 나와 겁이 나기도 했지만 아무런 통증 없이 치유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 박사의 치료법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다”며 “당뇨병도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면서 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하면 고칠 수 있으며, 유방암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적의 치유를 경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박사의 처방전에는 환약과 주사가 제공된다. 구 목사에 따르면 이 환약은 38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암 세포만을 멸절시킨다. 대부분의 성분은 남미와 아마존 산골에서 추출되기에 희소성이 있다.

그에 따르면 암이 100퍼센트 빠나 머리로 전이된 사람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고치지 못한다. 약을 복용한 후 3개월 후에 치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낼 수 있는 환자에 한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치유 방법을 이용할 경우 1만불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병이 고쳐지는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 아니라는 것이 구 목사의 설명이다. 또한 마음으로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약을 복용하면 효과는 더욱 좋다고 덧붙였다.

이 치료법을 시행하면 몸 안의 암 세포만 찾아다니면서 (암 세포를) 죽이고 또 그 고품을 체외로 빠져 나오게 한다. 반면 서양의 약에서 사용하는 항암치료는 건강한 세포까지 죽이는 단점이 있다.

문의: (213) 235-5800, (213) 252-9036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구기조 목사) (*이 글은 간증자의 개인적 경험과 의견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루얼 LA시장 후보, 한인교회 잇달아

방문해 지지 호소



웬디 그루얼 LA 시장 후보가 나성영장로교회를 방문했다. 사진 가장 가운데가 김경진 담임목사. 그 왼쪽은 그루얼 후보, 오른쪽은 임혜빈 KCCD 대표

LA 시장 후보이자 현 LA시 감사국장인 웬디 그루얼이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5월 에릭 가세티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르는 그루얼 후보는 한인사회를 향한 관심을 표현하며 한인교회의 요구 사항에도 귀를 기울였다.

14일 주일 그는 월셔연합감리교회, 나성영장로교회, 새생명전교회회를 연이어 방문해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했으며 각 교회 담임목사와 면담했다. 이 모든 모임은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 2013년도 여름학기 안내

로버트 스타인·랄프 네이버 박사 강의 전한다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단의 6개 신학교 중의 하나이며, 북미주에서 9번째 규모인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GGBTS)이 2012년 가을학기에 이중언어과정을 시작했다.

인 교수의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강의는 성경을 올바르게 분명한 해 석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 받으며 많은 인기를 누려왔다.



로버트 스타인 박사 랄프 네이버 박사

남침례교단의 복음적이고 선교적이고 성경적인 학풍에 따라, 미국신학교육의 장점이 집약된 가운데 현재 영어와 한국어 이중언어로 강의 및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민교회와 선교지의 다문화 사역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커리큘럼의 조정이 맞춰져 있어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 목회학사(M. Div.)와 신학석사(M.T.S.)의 두 과정에 34명의 차세대 사역자들이 훈련 중에 있다.

6월 25일(화)부터 28일(금)까지는 랄프 네이버 박사(Dr. Ralph Neighbor)가 셀교회 사역(Cell Church Ministry) 과목을 맡아 강연을 펼친다. ‘셀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셀치치 사역을 크게 부흥시킨 경험이 있다.

특별히 올 여름 GGBTS 남가주 캠퍼스에서는 세계적인 신학과 사역 방면의 전문가를 초청해 수준 높은 신학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6월 4일(화)부터 7일(금)까지 로버트 스타인 교수(Dr. Robert H. Stein)가 해석학(Hermeneutics) 강의를 전한다.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수학하고, 미네소타의 베네티신학교와 캔타키의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스타인 교수는 해석학, 공판복음, 비유연구, 역사적 예수 분야에 걸쳐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한국에 많은 번역물을 통해 잘 알려진 학자이다. 현재 Baker Exegetical Commentary 시리즈의 공동편집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스타

이 두 강의는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며, 남가주 지역의 관심 있는 목회자와 교회지도자들이 수강신청이나 청강을 할 수 있다. 문의: (714) 256-1311 (ext. 224/ 피오나리 전도사) 이메일: ggbskeb@gmail.com 주소: 251 S. Randolph Ave., Brea, CA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단편소설

고마운 왼손 (3)

다른 의사가 다가오며 웃는 모습을 의아스럽게 여긴다. 상태로 바뀐 얼굴을 찌푸려도 모자랄 것 같은데 미소짓는 것을 보니 참을만한 모양이라고.

나는 의사를 편하게 바라보며 그의 손에 들린 X-ray 사진에 관심을 보인다. 의사는 사진 석 장을 벽에 있는 투시상자에 고정시키며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의사의 전문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인지와 검지는 뼈의 손상이 없는 것 같아 수술이 끝나면 원래 상태로 회복될 것이지만 중지는 보다시피 뼈가 으깨져서 끝부분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는 수술에 필요한 전문 외과의사와 수술 팀을 소집했으니 준비되는 대로 수술하자고 한다. 나는 진통제를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제야 간호사에게 진통제를 주라고 한다. 그래도 진통제를 맞으면 곧 통증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참는 데 도움을 준다.

손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두 손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며 나를 만들어 왔고, 하고자 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주었다. 손은 나의 힘이었고 느낌이었다. 열 손가락은 내 충직한 수하였고 보호자이기도 했다. 부드러움도 뜨거움도 손가락으로만 느껴지는 감각이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을 감당하지만 세상이 주는 느낌이 눈과 코로 시작되어도 마지막 확인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손을 통해서다.

손은 생각에 지배를 받지만 생각을 확인해 주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도 한다. 무거운 거라고 느껴지는 물체를 손은 그 무게를 직접 느낄 수 있어 구체적 판단의 자료를 제공한다. 숫자를 세는 것도 손의 도움이 절실하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모든 수의 개념은 열손가락을 의존하여 이해되고 계산되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손은 느끼게 하고 계산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그런 일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 같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 균형을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완성해 나간다.

손은 표현을 한다. 입의 도움 없이도 사랑한다는 뜻을 전한다. 승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가 최고라는 표현도 쉽게 한다. 약속을 확인하기도 하고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지막 표현도 할 수 있다.

손을 사용하여 표현하지만 같은 의미를 다르게 보여주며 뜻을 전달하기도 한다. 미국 사람은 오라는 표현을 할 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손가락을 몸 쪽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반복하지만 나는 땅 쪽으로 손바닥을 향하게 하여 같은 동작으로 오라는 신호를 한다. 미국 사람은 중지를 세워 상대를 폄하하지만 나는 오른손 주먹과 왼손을 이용한 행동으로 욕을 대신한다.

중지 끝을 잃게 되면 미국식으로 욕을 하기는 틀려버렸구나 생각한다. 내 왼손은 더 이상 상대방을 엄선여기는 교만을 표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상처를 입더니 더 고상한 품격까지 갖추어가는 왼손이 존경스럽게 느껴진다. 하던 생각이 흘러지는 것 같아 고개를 저어본다.

손은 다른 세상과 사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 손은 거미줄을 걷어내고 위험이 되는 물건을 옮기기도 한다. 잡아당기는 것이 이로우면 때는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것이 이로우면 때는 밀어낼 줄도 안다. 맨주먹이 공격

무기가 되고 방어무기가 되기도 한다. 손에 무기가 쥐어지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소총을 사격하는 군인의 자세를 보면 온몸을 사용하지는 왼손은 총을 견고히 고정하는데 사용되고 오른손 인지의 마지막 마디의 감각으로 사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인지의 감각을 군에서 교관들은 '여성의 젓꼭지를 누르는 기분으로 방어쇠를 당기라'라고 강조한다.

전쟁은 손이 한다. 인지의 미세한 감각이 역사를 누르고 있다. 대부분 오른손 인지의 동작으로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 오른손 인지가 누르는 버튼이 미사일이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폭탄이 장전된 버튼이면 핵폭탄을 날려 보낸다. 손이 없으면 전쟁도 없을 것이다.

간호사가 들어와 진통제 주사를 놓으려 한다. 최고로 아픈 상태를 10이라 가정하고 아프지 않은 상태를 0이라 하면 지금 통증은 얼마로 말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 애매한 질문이다. 나는 망설이다가 7이나 8정도라고 대답하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어본다. 간호사는 과도한 진통제를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라고 대답한다. 어차피 수술 전에 마취를 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진통제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진통제 주사약을 조절하더니 주사를 놓고 간호사가 나간다. 다시 혼자 남는다.

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오래도록 하기는 처음이다. 통증이 서서히 무뎠다는 왼손을 펴 손바닥을 무심히 바라본다. 손금이 눈에 들어온다. 오른손을 펴 손금을 비교해 본다. 다르다. 왼손의 손금은 손바닥 중간을 가로질러 동양학 대나무처럼 선명한 세 마디가 보이는 선이다. 군에서 파계승이라는 후배는 내 손금을 보고 '막 된 손금'이라는 표현을 하며 통상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화통하고 강직하며 불의를 못 참고 굴하지 않는 성품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군인으로서 좋은 말은 다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 흐뭇하면서 웃어넘겼었다.

가로지른 손금에 대나무 줄기 같은 세 손금이 굽고 작게, 선명하게, 희미하게 이어지며 원근을 표시하는 듯하다. 문득 가로지른 손금이 강이고 그 작은 손금들은 셋강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그 작은 셋강들은 손목을 향해서 흘러내린다. 발원지가 없는 강물이다. 누군가 물을 흘러내려 보내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는 강물.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흘러보내는 절대자의 의도를 손금으로 읽어 보려 하는 걸까?

오른손의 손금은 왼손과 전혀 다르다. 엄지와 인지 손가락 중앙에서 굽은 선으로 출발하기는 마찬가지지만 1센티를 겨우 지나 손목을 향해 방향을 틀어 흘러가면서 또 다른 선명한 손금과 나뉘어 손바닥 가운데로 흘러내리다가 없어진다. 손바닥 중앙에서 시작되는 다른 손금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힘차게 뻗어 있다. 이 세 손금을 연결하는 얇지만 또렷한 손금이 중지 손가락 밑에서 손목으로 이어져 있다. 자칭 파계승 도사는 오른손 손금을 보면서도 잡음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아 큰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많지 않겠지만 인생의 중요 고비마다 방향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계속> 글=주경로 작가

“불구하고”



박성근 목사 로스앤젤레스한인침례교회

멕시코에 가면 “불구하고”라는 제목의 비문이 새겨진 아름다운 조각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은 작품의 주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각한 조각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것입니다.

이 작품을 빛은 조각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에 그만 부서진 돌기둥 하나가 무너지면서 자신의 오른팔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팔인데 그것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왼손으로 조각 만드는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남은 한쪽 팔로 조각품을 완성했고, 이것을 기리기 위해 “불구하고”라는 제목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구하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좋고 길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자들이 성공의 열매를 맛

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불구하고”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난과 역울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악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고,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칠혹같이 어두운 감옥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밤중에 하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결박을 풀고 오히려 복음을 외치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극복의 신앙이요, 비전의 신앙이며, 마침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적의 신앙입니다.

“때문에”의 신앙에 머물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불구하고”의 차원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살람!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되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손병렬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최성은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2630-A Townsgate Rd. Westlake Village, CA 91361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독교인이자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믿음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장려하여 공동체를 살리는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9262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림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김함영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열매를 맺는 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92604

최상준 담임목사 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지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열매를 맺는 교회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92683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박세록 대표 SAMCARE INTERNATIONAL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허기암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이빙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세일기간 : 3월중 구연산 신제품 출시될 때까지

원산지 개선과
원산지 인증에
우수한
일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마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피로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리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게 되었을까?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내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Life



이스라엘 탐방

기독교인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어떻게 지내야 주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일 새벽기도회에 참석하고, 각종 부사에서 봉사하며,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면 주일을 잘 지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하지만, 의외로 주일 맞이는 교회 교육에서 사각지대에 속한다. 주일 맞이에 대한 좋은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주일 맞이에 대한 글을 정리한다.

안식일에서 시작된 주일

주일은 안식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식일을 모르고 주일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주일의 시작은 안식일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데 무엇을 버려야 하고 또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 안식일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관련이 있다. 창세기 2:1-3에 '모든 창조의 일을 마친신 하나님은 제 칠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것이 안식일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첫째 의미는 일에서 떠나 안식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만약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주신 십계명의 네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 칠일에 쉬셨으며,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7일 가운데 단지 하루를 쉬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안식일에 내포되어 있는 것



추수감사절 모습

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고, 또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하지만 안식일의 의미는 여기에서 종결되지 않고 구속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3)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셨다.

신명기 5장 12-15절에 기록된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이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까지는 이미 언급된 안식일 규정과 동일하다.

하지만 15절을 보면, 구속의 의미를 더하셨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 자유·구속의 의미를 더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안식일의 의미는 일로부터 안식,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자유롭게 된 것을 기억하는 '날'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로 확장됐다.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명백한 이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을 보면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은 기억(자호르)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사모르)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잘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1)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것과 그들의 조상들이 이집트 바로의 노예되었다가 해방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한 가지를 더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다. 또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이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핍박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했다.

2)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정

확한 해석과 바른 적용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은 역사에서 유대 민족을 구하였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전통도 잘 지키면 마치 영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면, 주일처럼 지킨 안식일이 역사에서 유대 민족을 구하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느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면 개인은 경건함에 이를 것이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간의 신뢰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민 교회의 갈등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며,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실제 거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교회가 감당할 사명들을 충분히 감당해 갈 것으로 믿는다.

마지막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한 방법으로, 먼저 주일을 특별한 날로 알고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Preparation) 것을 권한다. 다음에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Worship).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주일 식탁에 모여 만찬을 갖는다(Sunday Family Meal).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주일 만찬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회상양으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가지셨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거룩한 의식이었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갖는 만찬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은혜, 기쁨, 평화, 구원, 믿음을 더할 것이다. 주일 만찬 자리에서 구원을 기억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다.

이주섭 목사

현)두루Tentmaker(www.eduru.co.kr/두루투어/두루예류/두루문화원) 고문
현)조지아크리스찬대학교(Georgia Christain University) 역사지리학과 교수
현)성서지리연구원 (Institute of the Biblical Geography) 원장
전)예루살렘 대학 역사학과에서 고대 성읍, 히브리 대학 고고학과에서 고대 도로를 수학
전)4X4 지프를 이용하여 방문 가능한 모든 성경적인 유적들을 탐방 사랑

'평신도가 변해야 교회가 산다'

11년간 300명 전도한

김인태 안수집사 초청 간증집회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11년간 300명 전도한 전도왕 김인태 안수집사가 말하는 전도노하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전 성경을 7번이나 찢었던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변화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전도집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4월 27일 오후 6시 30분

감사한인교회(김영길목사)

문의:714-521-0991

약력
일본 아바노 아이고 미용학교 졸업
독일 슈바츠코프 미용학교 한국강사
영국 일란 인터내셔널 미용학교 강사
88년 한국대표 아시아 미용선수권대회 우승
프로 태권도시범단 봉사,공인태권도 4단
나성 순복음 교회 안수집사
나성 순복음 교회 11년째 전도왕

주 관 : 감사한인교회, 나성 소망교회, 남가주 광염교회

후 원 : 기독교일보

살아있는 역사들



손인식 목사
베델한인교회

삶이란 한마디로 참고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참아왔고 앞으로도 잘 참으면 됩니다.

저희 바로 옆집은 한 지붕 밑에 대충 5개 가정 정도가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밤에 들어갈 때 보면 마치 무슨 자동차 달려처럼 6대가 넘는 차들이 서 있고 길 건너에도 세워 놓은 차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얼굴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고 심지어 무슨 앵무새를 기르는지 가끔씩 그 새의 고성이나 동네를 흥냅니다. 그러기를 어느새 2년이 넘어오는데 물론 그동안 단 한번도 우리 부부는 그 집 사람들을 향하여 불평이나 항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아야만 하는 초기 이민자들로서 비용을 줄여가며 사는 것이 분명하고 그 집을 세 준 사람은 그런 상황을 모른 채 타 도시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늘 집을 나설 때마다 그 집을 쳐다보며 인내를 다짐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없이 여러 문제들을 안고 지속적으로 참고 있는 중입니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오랜 시간을 참아내야 하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러야 하는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를 만나서 집값도 떨어지고 직장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으며 앞길 언제 풀릴런지 참아내며 살아가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래 참아온

사람들의 얼굴이 오히려 여유있어 보이고 성숙해 보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오래 참은 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나고 오래 참아낸 결과를 풍성한 수확으로 견어내는 멋진 케이스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는 것은 약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능력이며 믿음이고 속사람의 성숙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초대받아 갔던 가정은 그야말로 오랜 시간을 참아낸 부부의 가정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혼한 부부로서 서로 참아냈고 경제적 절망을 참아냈으며 유명한 요리사가 되는 인고의 시간들을 참아내고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미국 경제의 흐름들을 이겨낸 인내의 챔피언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친 형제보다 더한 형제, 자매가 되어 있었고 그중에 한 딸은

2세 목회자로 뛰고 있으며 그들 부부는 그 도시에서 가장 사업체를 많이 가진 첫 번째 부자로 꼽힐 뿐 아니라 교회봉사와 선교사역에 헌신하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내의 경주 끝에 얻은 면류관이고 참아낸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선물들입니다. 그 부부의 얼굴에 넘쳐나고 있는 겸손의 광채는 어느 화장품으로도 만들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참는데는 어느 정도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베델의 목회도 한마디로 인내와 참음의 연속입니다. 덕분에 교회 성도님들도 잘 참아내는 전문가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옆집 사람들도 어느날 집을 사고 떠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부가 참아준 열매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진보를 추구한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와 같은 수준의 중대 이슈로 이 문제를 다루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례보고서에서 “항생제 내성문제의 해결책을 당장 마련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수술 후 감염 때문에 사망했던 19세기 초로 돌아갈 수 있다”며 “장기 이식이나 암 치료도 감염 우려 때문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이후 개발된 신종 항생제가 없고, 대형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드는 노력과 비용에 비해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28년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이 처음 페니실린을 발견한 이후 1987년 리포펩타이드라는 항생제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항생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생각이 깊어졌습니

다. 각종 세균은 항생제에 맞서 엄청난 속도로 스스로의 힘인 내성을 기르고 있는데, 단지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약업체나 학계는 세균퇴치를 위한 신약개발에 무관심하다니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는 과거에 박테리아를 포함한 각종 세균감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플레밍이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 덕분에 인류는 각종 세균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스스로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끄덕하지 않는 슈퍼 박테리아로 그 몸집을 불렀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들은 돈벌이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항생제 개발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관심을 멀리하

고 눈에 보이는 이득에 사로잡힌 인류가 얻게 될 이익이 불보듯 뻔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공종의 권세 잡은 악한 영적 세력은 계속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며 신앙의 본질인 영성을 향한 강력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이에 맞설 강력한 영성개발에 무관심할 뿐입니다.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한 삶.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속과 불의한 영이 몸집을 키우고 있는 동안 안이한 영적 태도로 일관해 온 그리스도인들은 일격에 무너질 수 있는 헛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박테리아의 감염에 손도 써보지도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면,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의해 같은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8, 9)”고 권면합니다.

불의한 세상과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인 영성개발이 없이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불의한 영적 세력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단일한 생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를 추구합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 15일)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종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소탐대실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더 넓은 미국에 이민 나와 살지만 우리의 삶의 반경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집과 차는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학위를 받기도 하고 지식은 더 늘어났지만 가슴은 더 식어졌습니다. 몸에 좋은 약은 더 많이 먹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돈도 벌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지만 여유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더 늘어났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상실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해야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치와 행복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이 왜 좋은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왜 은혜의 자리입니까? 1년 동안이나 수많은 짐

승들과 창문이 없어 밖도 보지 못하는 곳에 갇혀서, 닦도 없고, 방향기도 없고, 나침반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떠다녔지만, 하나님이 친히 배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이민자 아브라함에게는 친척도 없고,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나 부귀 권세를 조금 더 얻으려다가 하나님을 잃으면 소탐대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과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기고, 방귀 편 사람이 안 편 사람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제 멋대로 예배를 드린 가인이 의로운 예배를 드린 아벨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욕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영적인 아들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욕의 사람 에서가 영의 사람 야곱을 핍박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처음에는 이겼지만 결국 쫓겨나고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다녔지만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핍박을 받던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빌라도는 천하의 죄인으로 이름이 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여 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역전승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아무리 부자며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도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인생이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며,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과 주장입니까? 소탐대실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므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샬롬!

성경통독과 이해를 위한 여덟째 지팡이



이 학진 장로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씩난 지팡이> 저자

시가서는 기독교 전통에서 구약의 세 번째 덩어리로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의 다섯 권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시가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예배용 찬송시(시편), 지혜문학(율기, 잠언, 전도서), 그리고 사랑의 문학(아가서)입니다.

율기는 인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된 보다 심오한 영적인 문제를 다룬 책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위대하심(신은 올바르다, 신정론)을 선포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적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무의미한 악이 발생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궁극적인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악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기는 읽기 힘든 책으로 그 내용을 분해해서 보아야 합니다. 즉 배우(율,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하나님)들의 열정적인 대사로 막과 장을 세우는 연극 대본이라고 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핵심 구절은 23:10입니다.

시편의 공통된 주제는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으로 그분의 신하심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을 받은 여러 사람이 지은 많은 시(150편)들을 모은 한 권의 시집입니다. 간구

와 교훈, 참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대한 찬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핵심 구절은 19:14과 145:21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15편은 모두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하여 지은이, 시가명, 사용용도,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실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모세 5경을 예표하는 다섯 권으로 나누어지며 각 권 말미에는 송영이 있습니다. 또한 시편은 사복음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은 23편이며 가장 위대한 찬송시로는 100편, 103편, 104편을 꼽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시편 139편이며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가장 짧은 장은 117편입니다.

잠언의 문자적 의미는 비교, 비유, 금언, 격언, 속담 등의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본서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쓴 것이며(1-9장, 10:1-22:16, 25-29장), 아굴(30장) 르무엘 왕의 어머니(31:1-9) 그리고 익명의 여러 현인이 쓴 것입니다(22:17, 24:23-34, 31:10-31).

본서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즉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 하나님(출

3:14)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에 근거를 둔 지혜의 책으로 신본주의적 주제는 다음과 같은 구절(1:7, 3:5-6, 16:3, 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1:1, 10:1, 25:1, 왕상 4:29-34, 전 12:9-10) 그의 통치기 후반에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막절에 낭독되었으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12:13)이라고 그 목적을 밝힙니다. 제목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 70인경에서 유래되었고 핵심 구절은 1:2과 12:1, 13이며, 이 책에서 전도자란 회중을 소집하거나 권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은 헛되므로(37회 사용됨)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전 12:1-1) 그분의 뜻대로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중심사상은 신본주의 사상입니다.

이 책에 자주 나오는 '해 아래 있는'이란 표현은 보잘 것 없는 인간의 관찰을 통해 얻어진 삶과 실체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특별게시)이 결여된 세계관을 말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 바알 하몬(8:11)이라는 북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자기의 포도원에 갔을 때,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는 것을 깨움으로 시작됩니다(8:5하).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구약의 정경으로서의 충분한 도덕적, 영적 교훈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녀의 진실하고 순결한 사랑에 대하여 도덕적 교훈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나친 금욕주의와 육욕주의를 함께 배제할 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사이의 거룩한 사랑과 연합이라는 심오한 영적 교훈까지 제시해 줍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첫 번째 명절인 유월절에 낭독되었으며, 특별히 유대인들은 본서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여, 잠언을 '성전 마당'에, 전도서를 '성전'에 비유한데 비하여 본서를 '지성소'에 비유하였습니다.

아가서는 6막 12장의 아름다운 노래들로 구성된 오페라 대본입니다. 구약 탐험(찰스 H. 다이어& 유진 H. 메릴)에서 제시한 막과 무대 장면의 구분을 통하여 무대를 세우고 그 내용을 채워 보았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솔로몬 왕, 술람미 여인, 그리고 배경음악이 되는 이스라엘의 딸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는 오축이라하여 이스라엘의 절기에 백성들이 읽는 다섯개의 성경(두루마리)이 있는데 앞서 언급된 전도서(조막절), 아가서(유월절)와 룻기(칠절), 에스더(부림절), 예레미야 애가(티사 베아브)가 있습니다.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 Tel: 213.380.0853 |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REVIEW

‘사랑’ 하면, 정말 신체가 건강해지고 수명도 늘어날까?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타적 사랑의 ‘효용성’

시간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다우)>의 서문은 시민운동가로 오바마 대통령과도 가까운 오티스 모스 주니어(Otis Moss Jr.) 목사가 썼다.

“우주를 통틀어 가장 급진적으로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이다. 이 책의 두 저자는 진정한 사랑이 품고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신의 작용에 대해 들려준다...”

이 책은 강인하고 용감하면서도 너그럽게, 한 마디로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과 우리 몸에 밴 행동의 한계를 뛰어넘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종교의 마음>, <나눔의 숨겨진 선물> 등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생명윤리학자인 스티븐 포스트(Stephen Post)와, 저널리스트이자 <블러드송>을 쓴 소설가이기도 한 질 니마크(Jill Neimark)가 함께 썼다.

‘생명윤리학자 스티븐 포스트 박사가 25년간 연구 분석한 사랑의 놀라운 힘’이 부제로, 포스트 박사는 알츠하이머병 연구를 통해 ‘사랑’의 위력에 눈을 떴다.

여기서의 사랑은 물론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 이타적 사랑이다.

포스트 박사는故 환경적 목사가 1992년 수상한 ‘종교계의 노벨상’ 템플턴상 제정자로 잘 알려진 ‘존 템플턴’ 경으로부터 2000년 한 가지 제안을 받는다.

“오직 사랑만을 깊이 연구하는 기관을 함께 세워보자”는 것이었다. 마침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사랑이 인간 존재의 핵심”

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새롭게 깨달았던 그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듬해 ‘끝없는사랑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on Unlimited Love, IRUL)’가 설립되기에 이른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을 지낸 해리 할로가 이미 반 세기 전인 1951년에 말했던 내용도 도움이 됐다.

“사랑은 깊이 있고 부드러우며 매우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심리학자들은 삶 전반에 스며들어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강력한 동기(motive)에 갈수록 덜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오와 폭력, 공포와 포르노에 관해서는 연구하면서, 왜 사랑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 감정은 연구하지 않습니까?”

끝없는사랑연구소(IRUL)는 현재 이타적 사랑을 주제로 삼은 선구적이고 수준 높은 실험에 연구비를 지원하고, 타인을 돕는 이들의 선한 마음과 행동, 삶을 연구 관찰해 ‘좋은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요인을 뽑아내며, 사람들이 진정한 교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기간 연구했고, 인간발달학과 뇌과학, 노인학, 심리학, 사회학 등 일반적으로(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을 동원해 “사랑이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수명, 사회적 성공과 행복한 노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철학적·윤리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조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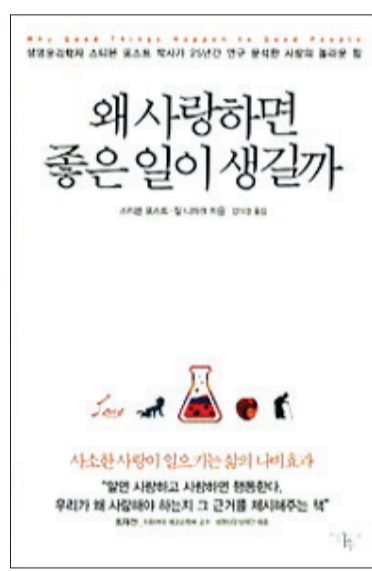
‘흥미롭고 참신한’ 연구 결과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주는 행위는 사춘기 시절의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낮춘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지속적인 운동보다도 사망률을 낮춘다 △누군가를 도우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사랑을 실천하면 자신에게 관대해진다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돕는 이가 도움을 받는 이보다 오래 산다 등이 있다.

포스트 박사에 따르면 사랑은 ‘아스피린’보다 뛰어난 약으로, 누군가에게 줄 경우 삶이 활기와 에너지,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사랑을 향한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과 건강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줄 수 있다. 특권을 타고났든 가난하게 태어났든, 축복받은 인생이든 고달픈 인생이든, 주어진 배경에 상관없이 위대한 사랑은 바로 당신 손에서 시작될 수 있다.” 더 이상 사랑은 ‘추상적 명제’가 아니다.

책에는 포스트 박사가 200개 질문으로 만든 ‘사랑생애지수(Love and Longevity Scale)’를 소개하고, 사랑의 네 가지 대상(가족·친구·이웃과 공동체·세상 사람들)과 열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이 열 가지는 ①삶을 축하하라, 감사 ②타인의 성장 돕기, 보살핌 ③사랑의 환원, 용서 ④사랑의 에너지, 용기 ⑤최고의 치료제, 유머 ⑥다시 보기, 존중 ⑦생존의 지킴이, 연민 ⑧관계의 끈, 충실함 ⑨공감하기, 경청 ⑩사랑의 천연조미료, 창의성 등으로, 책에서는 이를 자세



사소한 사랑이 일으키는 ‘나비효과’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누구나 사랑을 주고받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사랑생애지수는 이처럼 개인의 능하고 서툰 사랑의 방식과 함께 인생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그러나 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사랑은 단순하면서 위대하다. 푸근한 미소, 순간의 인내력, 부드러운 손길, 사심 없는 작은 선물처럼 사랑은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사소한 행동이 쌓여 행복한 인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사랑은 위대한 것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 이라면, 사실 이렇게 복잡한 증명과 사례들이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다. 여기 실린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상된 우리에게 당연한 진리이자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사랑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화로 꺼내 쓸 수 있는 소재가 많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지만 사랑이 메마른 이들도, ‘사랑의 효용성’을 몸소 체험하면서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참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불 ■1박스(3개월분) 360불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세종 뇌보감 골드** **진짜 발효삼? 진력 발효삼**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WIN HYUNDAI at El Monte

EQUUS SIGNATURE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4,9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1,0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8,3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499 Lease per month plus tax

SONAT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2,6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Lease Cash.....\$1,500
Total Drive off.....\$5,5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109 Lease per month plus tax

ELANTRA GLS 2013 5 @ THIS PRICE
Cash Out of Pocket...\$1,7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Competitive Coupon...\$500
Total Drive off.....\$3,199
Term.....24
Miles per Year.....12,000
\$99 Lease per month plus tax

ACCENT GLS MT 2013 VIN# NDU423702
Cash Out of Pocket...\$2,899
Military Rebate.....\$500
College Grad Rebate...\$400
Lease Cash.....\$500
Total Drive off.....\$4,299
Term.....36
Miles per Year.....12,000
\$89 Lease per month plus tax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 행사는 4월25일 까지입니다.

HYUNDAI Assurance
Tel. 888.409.3002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올해 소천 50주기 맞아 주요 작품들 재조명



C.S. 루이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 C. S. 루이스의 주제별 저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글쓰기 추구한 영적 거장

본보는 올해 C. S. 루이스 소천 50주기를 맞아, 그의 주요 작품들을 되새기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이에 앞서 루이스의 저서와 관련 서를 주제별로 살펴보고, 그의 삶을 간략하게 돌아본다.

C. S. 루이스는 학생 시절부터 인문학에 두각을 나타냈다. 10대 시절 고전 문학과 시를 즐겼고, 15세 때 고전학 장학생으로 칼리지에 입학하여 라틴어와 그리스어, 문법과 수사학을 공부했다.

16세 때부터는 2년 7개월간 탁월한 개인교사의 집에서 살면서 변증법을 배우고, 그리스어,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 이탈리아어를 공부하고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 단테와 밀턴을 포함한 여러 작가들의 책을 읽었다. 옥스퍼드에도 고전학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영문학부를 1등으로 졸업했다.

무신론자 시절에 익힌 인문학은 그가 유신론자가 되면서 꽃을 피워, 루이스를 “20세기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변증가”(타임)요 작가, 비평가, 영문학자로 만들었다. 루이스의 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열 권의 책에 속한 ‘유신론과 인문주의’에 대해, 저자 앨푸어(Arthur J. Balfour)는 자신의 책을 이렇게 요약한다.

“아름다움이나 선함이나 지식에 관련하여 인간의 문화에 대해 우리가 가장 탁월하게 사고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유신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인문주의는 그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 ‘기독교적 숙고’는 문학, 문화, 윤리, 역사, 철학, 신학에 관한 루이스의 인문학적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에세이집이다.

주로 학회와 전문 잡지에 실렸던 글들이라 독자가 공부한 분야가 아니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기적’ 등으로 루이스의 사상에 익숙해진 독자라면 도전해 볼 만한 ‘루이스 산’이다.

■거듭난 지성의 향연, 연마된 언어와 변증이 돋보이는 저작들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네 가지 사랑’, ‘시편 사색’, ‘개인 기도’, ‘기적’, ‘인간 폐지’,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어거스틴”, “20세기



변증법적 논리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소통에 매개자가 된 C.S. 루이스. 올해는 그의 소천 50주이다.

의 존 버니언”으로 불리는 루이스의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고전’ 시리즈. 국내에서 유일하게 C.S. 루이스 협회와 정식 판권 계약을 맺고, 꼼꼼히 공들여 번역·편집한 흥성사의 루이스 베스트셀러.

■지성이 상상력을 만났을 때! 루이스의 소설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천국과 지옥의 이혼’, ‘순례자의 귀향’(출간 예정). 변증가 루이스가 아닌, 섬세한 문학가 루이스가 들려주는 소설을 읽으며, 자아 정체성과 참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공상과학 소설의 지위를 높여 준 ‘우주 3부작’

‘침묵의 행성 밖에서’, ‘페렐란드라’, ‘그가 공할 힘’.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서 잠시 빠져나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시 세계를 바라보고, 익숙한 삶과 가치들을 재평가해 본다. 그의 절친한 친구 J.R.R. 톨킨은 출판사에 이 책을 적극 추천하면서 “작품에 매료된 나머지 다 읽을 때까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으며, “언어 창조와 문헌학적으로 볼 때 단순히 좋

은 정도가 아니다”라고 극찬했다.

■루이스에게 기쁨과 슬픔이란... 삶과 사색이 묻어 있는 자전적 글들

‘예기치 못한 기쁨’, ‘헤아려 본 슬픔’.

무신론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한 미적 갈망의 본질을 발견한 ‘예기치 못한 기쁨’.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걱정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며 다시금 슬픔을 ‘헤아려 본’ 일기.

■지극히 사적인, 인간 루이스의 편지 모음집

‘루이스가 메리에게’(2009),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2012), ‘Yours Jack’(출간 예정). 루이스의 편지들을 통해 많은 이들의 영적 안내자 역할을 감당한 ‘인간적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루이스’를 만난다.

■순전한 영성과 인문학적 교양이 담긴 설교와 에세이 모음집

‘영광의 무게’, ‘피고석의 하나님’(2011), ‘

기독교적 숙고’(2013), ‘The World’s Last Night’(출간 예정).

루이스의 위대한 점은 어떤 질문이든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대면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결국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하고, 수많은 회의론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회의자의 사도’가 되었다. 그의 에세이들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로 해결되지 않는 지적 갈등을 해결해 준다. 인본주의적 인문학자들에게 응대할, 고전적 의미의 인문학적 교양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365일 만나는 루이스의 글 모음집

‘C. S. 루이스, 기쁨의 하루’(2010), ‘C. S. 루이스 데일리 메시지’(2010).

루이스의 주옥같은 글들을 발췌하여 일년 365일 묵상할 수 있게 엮었다.

■루이스를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다른 작가가 쓴 루이스 연구서들

‘루이스 대 프로이트’(2004), ‘루이스와 톨킨’(2005), ‘나니아 나라를 찾아서’(2005), ‘루이스와 잭’(2006), ‘C. S. 루이스와 기독교 세계론’(2012).

20세기의 무신론자 프로이트 대 동시대 유신론자 루이스의 대결, 문학적·신앙적으로 서로 자극을 준 루이스와 톨킨의 우정, 루이스의 상상력과 정신세계를 다룬 연구서들.

■루이스에게 영향을 준 작가와 책, 리본 잉클링즈 시리즈

‘루이스의 서재’(2009), ‘조지 맥도널드 선집’, ‘The Everlasting Man’(출간 예정), ‘The Unspoken Sermons’(출간 예정), ‘Descent Into Hell’(출간 예정).

루이스의 사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루이스에게 지적·영적인 양분을 공급한 스승들과 문학서를 ‘잉클링즈’ 친구들의 책. 루이스가 자신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한 책, 그가 즐겨 읽은 책, 독자들에게 추천한 책, 조지 맥도널드, G. K. 체스터턴, 찰스 윌리엄스 등의 작가를 만날 수 있다. /한미영 과장(홍성사 편집부)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Sports Mission College 스포츠 미션 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성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 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회 중회장 황수원목사, 중장 강부용 박사, 재단 이사장 류당열 목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이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하약 보장,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10% 할인

✓브레이크 ✓투입정비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로템

웹디자인
쇼핑몰, e-commerce, cms 웹사이트,
온라인 배너, 웹사이트 유지 및 보수

그래픽디자인
명함, 브로셔, 신문/잡지 광고, 배너



Rodem N. Hwang
Designer

213-587-3498
kp.rodemh@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오픈도어선교회가 전하는 주간박해소식

北 지하교회 지도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집트(Egypt)

이집트의 크리스천들이 불안정한 상황으로 두려워하며 안전한 지역을 찾고 있다.

수 만의 크리스천들이 혁명 이후에 이집트를 떠났는데, 이는 보수적인 이슬람의 성장과 나라의 총체적인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다. 종교 간 긴장의 극적인 예는 지난 일요일 카이로 중심에서 발생했다. 이집트의 중심부에 있는 콥트 기독교 예배당에서 장례식이 끝난 후 등장한 무리들은 크리스천 참석자를 공격했다.

이집트의 불안정한 상황, 부패한 경제, 범죄의 증가로 두려워하는 많은 이집트인들은 나라를 떠나거나 떠나려고 시도한다. 그들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면 쉽게 목표가 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크리스천들도 없지 않다. 한 사제의 증언에 따르면, 이집트 전 대통령인 호스니 무바라크(Hosni Mubarak) 시절에는 소수 민족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크리스천들은 더 안전했었다고 한다.

카이로에 있는 한 외교관의 말에 의하면, 이집트를 떠나려는 이집트인

들의 시도가 혁명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안전과 경제적인 부에 대한 열망은 외국 비자를 받으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동일하다. 얼마나 많은 수의 크리스천들이 혁명 이후에 이집트를 떠났는지에 관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수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집트 콥트교의 대주교인 이브라힘 이사크 사드락 (Ibrahim Isaac Sedrak)은 “정확한 것은 없고 루머만 가득하다. 수십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수천명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그러하다”고 전했다.

사드락은 “나는 그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설득할 만한 방법이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는 조국에 남아있다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뿐이다. 우리는 국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해외로 떠난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기도제목

1. 이집트의 불안정한 상황, 경제적으로 부패하고 범죄가 늘어나는 현

실이 변화될 수 있도록

2. 이집트를 떠나는 크리스천들이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이집트에 남아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욱 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북한(North Korea)

북한의 지하교회 지도자는 북한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금지되어 있다. 지하교회는 북한에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다.

한 크리스천 지도자는 북한 사람들이 최근 ‘최고 사령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요약해 “우리는 양 손에 무기를 들고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군대는 로켓을 장착하고 예비군을 편성하여 전투 태세에 돌입했다. 밤이건 낮이건 긴박한 논의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논의를 통해 당국은 여성을 포함한 전 인민이 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전투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 소식에 의하면 많은 차량들은 위장 그물로 덮인 채 길 위에 있고 군인들은 총을 들고 나뭇가지로 위장을 한 모자를 쓰고 있다. 김정일은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한의 괴뢰 정부의 용서할 수 없는 도발 행위 때문이며, 그들은 결국 몰락할 것이고 우리는 통일의 화려한 새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선군’과 대국의 힘을 전세계에 보여줄 날이 머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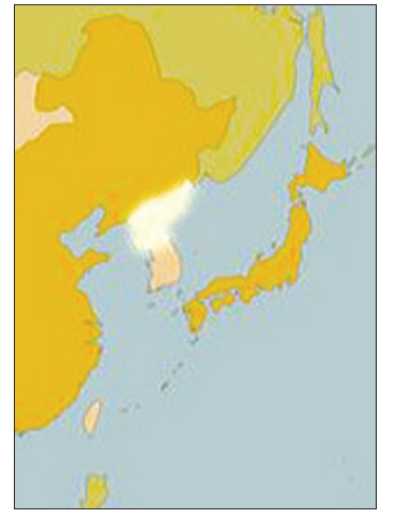
그러나 크리스천과 대다수의 시민들은 전쟁과 그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은 비상식량과 생활 용품을 준비하는 데 서두르고 있다. 식품을 비롯한 상품들의 가격은 시간마다 급등하고 있다”고 말한다.

크리스천은 외국의 반응에 감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긴급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형제 자매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후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지만 우리의 믿음과 절실한 소망, 갈망이 언젠가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한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어떠한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

한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기도제목

1. 북한의 전쟁 도발이 멈추고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도록
2.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가정 칼럼

부부란?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창 2:24)에서 부부라는 몸으로 표현합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인 하나님, 사람은 바로 둘이 하나가 되어 부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가 부부처럼 친밀해야 함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간의 삶을 살펴봐도 아도 인간의 관계 안에서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 성공해야 행복한 것입

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와 명성을 지녔어도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사이의 관계가 자녀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에게 정서적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아내는 아이들에게 매달려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녀를 마마보이로, 공주병 걸린 딸로 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을 쏟던 아이들이 자신의 품을 떠나면 허무하고 쓸쓸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자녀들의 배우자를 시기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로 하여금 건강한 결혼 관

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여 행복을 영위하는 것은, 본인들을 위한 가장 값진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억만금의 보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개리 체프먼은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가 한평생 아름답게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때문에 목회자를 떠나는 선교사나 목회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



이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세미나 교회 부수적 활동일 수만은 없습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이제 교회의 중심사역이 되어

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부들이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면, 걸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한 열매 또한 건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교인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집니다. 부부는 ‘한 몸’(창 2:24)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삼위 하나님이 하나되는 것을 본다면, 사람은 부부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기독교상담학 박사 김훈 목사

이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무제한

첫 2개월 무료!

AT&T, Verizon 집전화 사용자 여러분! 비싼 요금으로 계속 쓰시겠습니까?

미국 무제한 플랜 로컬, 장거리 무제한 통화 국제전화 매월 60분 무료**

~~\$9.99/월~~ **\$0.00/월** 첫 2개월간, 이후 \$9.99

마감 임박

4년 연속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행사기간 2013년 4월 30일 까지

미국 최저가 **패밀리 알뜰 플랜**

~~\$4.99/월~~ **\$0.00/월**

▶ 수신 무제한
▶ 미국 로컬, 장거리 2센트 첫 2개월간, 이후 \$4.99
▶ 기존 전화번호 유지 가능

글로벌 플랜

~~\$24.99/월~~ **\$0.00/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첫 2개월간, 이후 \$24.99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발신번호 표시, 착신전화 가능 제공

글로벌 플러스 플랜

~~\$34.99/월~~ **\$0.00/월**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첫 2개월간, 이후 \$34.99
▶ 한국(유선)포함 27개국 무제한
▶ 한국 휴대전화까지 무제한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아이토크비비 **www.Korea.iTalkBB.com** LA 직영점 (코리아타운 캘러리아 304호) 213.559.7557 | 1.800.872.2902

지금 가입하고 친구추천 하면 **1개월 무료** 고객센터 문의 1.800.875.8318

365일 오전 6시~오후 10시(30분 PST)

www.phhyundai.com

스마트하게
현대차를
구입하려면,



SUPER STORE 푸엔테힐스현대

고객의 1등 사랑, 1등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현대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푸엔테힐스 현대가 도와 드립니다.
친절한 상담과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2013 ACCENT GS M/T



\$69

+TAX (STK #09212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15,985

PH HYUNDAI D/C \$1,344 MILITARY REBATE \$500
COMP.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90

+TAX (STK #701499)

36 Month lease / 12k mile / T.D.O \$2,999

MSRP \$22,360

PH HYUNDAI D/C \$2,300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EQUUS SIGNATURE



\$473

+TAX (STK #065945) Demo

48 Month lease / 12k mile /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8,282 COMP. REBATE \$1,000
LEASE CASH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Sales
스티브장
626.513.4005

Fleet Manager
찰리 정
626.513.4981

Sales
브라이언 리
858.337.3993